



# 양양소식

## 군정방침

- I. 활기찬 지역개발
- I. 독특한 관광진흥
- I. 풍요한 복지 실현
- I. 찬란한 문화창달
- I. 질 높은 자치 구현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 (033)672-4242

##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양양군수 이진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13호 태풍 '루사'로 인해 양양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출지에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유가족과 아직도 행방조차 알지 못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실종자 가족분들의 한없는 슬픔에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 온 생명과도 같은 농경지와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러온 가족을 삼시간에 잃고서 고통에 잠겨있는 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의 3분의 1 이상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양양 시가지, 거마, 용천, 어성전, 상·하월천 등 성한데가 없습니다.

추석명절로 다가오는 길목, 고향의 소중한 터전이 붕괴되었습니다.

도로도, 가옥도, 곡식도, 과실도... 어딜가도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선결과제로 삼고 여·야 정치지도자와 정부 고위관리 등 양양지역을 방문했던 수 많은 인사들에게 피해 주민들의 절규와 참상을 확인시킨 결과 9월 13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생명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이 태산같이 높고 험할 지라도 결코 좌절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절망과 실의에서 벗어나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재기와 재활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나아갑시다. 아울러 군에서도 인력과 예산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조기에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역량을 과시하십시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2002년 9월 13일 저녁 양양군수 이진호 드림

## "양양군 특별재해지역 선포"

- 지난 13일 정부공식발표... 수해응급복구 본격돌입 -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을 비롯한 모든 수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재해 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 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을 비롯, 16개 시·도 2백3개 시·군구의 1천9백 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백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하게



**<사진설명> 설악권에서 사상최대의 수해가 발생해 우리 지역 이재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진호 군수가 지난3일 서면지역의 주택파손현장에서 수마에 집을 송두리채 빼앗긴 팔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

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전파의 경우 5백만원, 반파의 경우 2백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백만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택, 농축산 시설복구비용의 경우 전파는 평당 180만원으로 18평(그 이상의 평수도 18평으로 적용)까지 3천2백40만원이 지급되며, 반파는 전파의 1/2에 해당하는 1천3백50만이 지급된다. 이밖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전기 등이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 감면, 조세감면, 납기연장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재해 재발우려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가 확대된다.또 사망, 실종자에게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가며 세대주와 부상자에게도 1천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 위로금의 경우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

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재해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전국 단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내용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재산피해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만5천명 이상인 경우엔 시·도 단위로, 총 재산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천명 이상인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선정된다.

또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다. 이에 따라 4천 3백 72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은 응급복구 본격화와 함께 이번 수해로 인한 총체적 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태풍피해 4천억대 사상 최악"

- 이재민 1만명 고통 ... 사망(실종) 24명으로 늘어 -



**<사진설명>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현북면 원일전리 주민들이 고립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통나무다리를 놓고 있다.**

살인적 태풍 루사의 강타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1만여명의 수재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태풍피해 규모가 지난 16일 현재 4천3백7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설악권 최대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또한 지난주까지 23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우리지역은 지난 9일 현남면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 보고되면서 사망 21명, 실종 3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24명의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집계된 주요 피해규모는 △도로 48개소(54km)와 교량 30개소(1.7km) 1천11억원 △하천 19개소(102km) 7백56억원 △수리시설 2백68개소 3백85억원 △공공시설 54개소 2백50억원 △소규모 시설 5백83개소 2백19억원 △건물 3천2백85동 1백61억원 △사방·임도시설 61개소(40km) 1백34억원 △소하천 11개소(71km) 1백33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상하수도 69개소 49억원 △사유시설 80개소 35억원 △축사 57개소 28억원 △군사시설 31개소 26억원 △농경지 3백5ha 20억원 △학교 20개동 8억8천만원 △어망·어

구 39동 6억여원 △수산증양식 5개소 5억6천만원 △어항시설 7개소 4억3천만원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양곡, 부식, 의료, 침구, 라면, 생수 등 구호물품을 비롯한 의연금품 전달을 통해 본격적인 이재민 구호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천5백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반과 방역반을 편성, 의료 및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양초등학교와 서면 복지회관, 현북초등학교, 어성전 복지회관, 월천분교 등 관내 5곳에 42세대 1백9명의 이재민을 수용, 복구작업과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기와 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작업을 실시해 현재 전기의 경우, 고립지인 현북면 법수치리와 면옥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통신시설은 현남면 상·하월천리, 죽정자리, 입암리 등 4개 마을의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 위성전화기 설치 등을 통해 90% 이상이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컨테이너 1백20동을 마을별로 보급할 계획이며 현북면 원일전리 전용환씨 농가 1천5백30두와 손양면 양돈단지 7백20두 등 유실된 가축에 대한 완전매립과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태풍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발생한 쓰레기 4천9백31톤을 군부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동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50개소에 이르는 피해현장에 굴삭기, 로우더, 덤프를 투입, 응급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태풍피해 규모를 기록한 우리지역에는 각계각층의 구호품과 수재의연금에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대규모 정부지원과 군의 응급복구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 "인명피해 최대"

### - 10명 사망(실종), 18가구 파손 -

설악권 최대의 수해 피해지역인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남면 상·하월천리는 현재 18가구가 전파되거나 유실되는 등 마을 전체 40%가 넘는 가옥과 농경지(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사망 6명, 실종 4명으로 모두 10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상·하월천리는 지난주까지 관내 고립지로 군 헬기를 동원해 이재민 지원에 나서면서 구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남면사무소의 빠른 복구지원과 활동으로 일반전화를 제외한 도로와 전기시설이 정상화를 찾고 있다. 또한 굴삭기와 덤프 등 5대의 중장비가 투입돼 하월천리 도로, 산사태복구, 상월천리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으며, 임시주거용 컨테이너도 18대가 설치되는 등 일반 장비업체를 통한 활발한 복구작업이 탄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살인적 태풍피해로 인해 전체 66가구 가운데 18가구 주민들이 이재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하는 등 앞날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 인명피해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된 상·하월천리는 살인적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와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끊기면서 넘친 하천범람이 재산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의회 김우섭의원(현남면)은 “어려울 때마다 고비를 넘기면서 생활해온 주민들이 이번 태풍피해로 삶의 터전과 의욕마저 잃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대규모 정부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호소했다.



<사진설명> 우리군 현남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사망과 실종 등 6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하월천리에서 산사태로 파손된 가옥복구에 나서고 있다.

## "눈물의 수재의연금 '감동'"

### - 양양읍 송암리 김웅래씨 1천만원 구호품 전달 -

### - 과수농원 침수불구 이재민돕기 실천... 사과 80상자도 -

태풍 루사의 피해로 우리지역 이재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한 가운데 양양읍 송암리에서 과수농원을 운영하는 김웅래씨(44)가 1천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과 사과 80상자를 우리군에 기탁해 훈훈한 수해미담이 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양양군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씨는 지난달 집중폭우로 자신의 과수농원 3ha가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서 수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달래기 위해 1천만원의 사비를 털어 쌀과 생필품을 구입, 지난 10일 이재민들에게 써 달라며 군에 쾌척했다. 남대천 하천변에서 과수농원을 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 31일 폭우가 쏟아지자 애지중지하던 과수농원을 둘러보다 급류로 물이 차 오르는 순간, 농업기술센터 김연홍 소장의 대피연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로 간신히 피신했다. 다음날 새벽, 비가 그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물에 잠긴 자신의 과수원을 보고 막막함을 감추지 못했으나 “여기서 좌절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다시 이를 악물고 시작한다”는 신념으로 복구작업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듯 자신도 수해피해자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김웅래씨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재민들이 많다는 생각과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모습으로 사재를 털어 수재의연금품을 전달, 귀감이 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김웅래 전회장의 이번 수재의연금 전달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말했다.

## "미싱기 1대와 장독대가 전 재산 "

- 현북면 장리 피해현장... 텐트치고 생활 -

“하늘도 무심하지 ! 미싱기 1대와 장독대만 남기고는 다 쓸어 가면 이 늙은이는 어떻게 살라고...추석이 코 앞인데 자식들에게 해줄 것도 없고 이제는 눈물도 안나와”

살인태풍 루사로 70평생을 살아온 집을 송두리째 빼앗긴 현북면 장리 김봉녀씨(70)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자식들이 만들어준 텐트에서 추운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다.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고 지금껏 혼자 살아오다 태풍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김할머니는 “기자들도 많이 다녀가고 했지만 지난주 이진호 군수님이 찾아와 이 늙은이 손을 꼭 잡고 희망을 준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위안을 삼았다.

태풍피해로 남은 것이라곤 오래된 미싱 1대와 장독대 2개가 고작인 김할머니는 피해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아온 이진호 군수의 위로에 마음을 달래며 달랑 남은 집터 위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해갔다. 47세대 1백38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북면 장리는 현재 30%가 넘는 14가구 60여명의 주민들이 김봉녀 할머니처럼 태풍피해로 수마에 집을 빼앗긴 채 이재민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유실과 전파된 가옥이 8동, 반파 2동, 창고를 비롯한 기타시설 4동이 전파되고 1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는 모두 18.4ha가 유실 또는 매몰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태풍루사로 그동안 살아온 집과 어미 소를 모두 잃어버린 김학식이장(65)은 “전쟁이 일어나도 소나 중요한 재산들은 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이번 수해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갔다”며 “목숨을 구한 것만도 감지덕지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 보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추석을 걱정하는 김할머니의 애절한 마음과 어미소를 잃은 송아지를 돌보기 위해 비닐로 덮은 천막에서 지내는 김이장의 눈망울에는 맑은 가을햇살처럼 그동안 살던 집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일말의 희망 섞인 눈빛이 짙게 묻어 있었다.



<사진설명> 70평생을 살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김봉녀 할머니는 자식들이 만들어준 텐트에서 생활하며 밀려온 토사에서 간신히 견뎌낸 미싱기 1대 장독대를 벗삼아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 "수해지역 방역활동 강화 "

- 군 보건소·속초의료원 진료반 투입 -



<사진> 양양군보건소 진료반이 속초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수해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건강진료와 함께 전염병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현북면 장리에서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모습

태풍피해로 인한 우리지역의 수해현장에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보건소가 속초의료원 진료반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 보건소는 태풍피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전직원 53명이 6개 읍·면에 배치돼 이재민들의 건강과 예방접종 활동을 펼쳤으며, 9일부터 의사 2명을 비롯한 9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속초의료원 진료반의 협조를 얻어 방역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난주까지 고립지로 묶였던 현북면 어성전리와 면옥치리 지역을 군헬기를 통해 들어가 진료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민들의 건강을 보살폈다.군 보건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응급복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밤늦도록 관내 곳곳을 돌며 장티푸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사랑의 자장면' 수해주민들 위로 "

- 지난 10~14일까지... 인제와 서울지역 회원 30여명 -

사상 최대의 수해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진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랑의 자장면'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연



**<사진설명> 인제지역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지난 10일 현남면 하월천리를 방문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랑의 자장면'을 전달했다. 사진은 제공된 자장면을 먹는 주민들이 오랜만에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민들이 밤에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리털 이불 25채를 전해와 마을별로 전달됐다. 서울시 중식업협회 정관호회장은 “가장 신속히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자장면으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언론보도만을 보고 생각한 수해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참 기가 막혔고, 하루빨리 정부지원이 미치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해지면서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설악권 인근 지역인 인제군에서 낙원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연 씨 등 인제지역 자원봉사자 10여명은 지난 10일 10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현남면 상·하월천리 수해현장을 방문해 자장면 3백그릇을 뽑아 수재민들과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수해가 일어난 지난 1일부터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했던 마을 주민들은 사랑의 자장면 2~3그릇을 거뜬히 비우면서 모처럼 맛보는 별미에 한 시름 잊고 즐거워했다. 이어 지난 11일 설악권 최대 피해지인 우리 지역의 수재민들을 위해 방문한 서울시 중식업협회(회장 정관호) 회원 10여명은 이날 현북면 어성전 1리를 찾아 복지회관에서 자장면 1천명분을 무료 급식했다.

서울시 중식업협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서면 용천리를 찾아 1천명분의 자장면을 전달하는 등 13일까지 매일 1천명이 먹을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의 자장면을 뽑아 수재민들과 복구작업지원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했다. 한편 춘천수영장 무지개등산팀(회장 조휘중) 회원 20여명은 서면 용천리를 방문하고 양구에서 구입한 무로 만든 깍두기와 떡을 전달했고 춘천시 침구판매업체에서도 수재

##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 "

강릉보훈지청은 태풍루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재해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현재 3백37명의 수해피해를 접수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보훈지청 관리과(647-9853~4)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 재해위로금 지급요건 및 금액

- 인명피해 : 50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기타 재산피해 : 50만원

단, 인명피해는 사망(실종)확인서, 주택피해의 경우는 재해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과세증명서, 기타 재산피해는 재해확인서와 피해내역을 필요로 한다. 재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말하며 피해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액이 많은 쪽을 적용한다.



## 태풍피해화보 /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한우떼 죽음> 서면 북평리에서 한우 80마리가 폐 죽음을 당한 채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모습**



**<한 개의 날알이라도...> 7천평이 농지 가운데 절반인 4천평의 피해를 입은 현북면 장리 이흥국씨(63)**



<제주 광천수 공수> 제주도에서 항공기편으로 양양 국제공항에 긴급 수송된 제주광천수를 내리는 모습

가 추석을 앞두고 매몰된 논에서 햃밥이라도 짓기 위해 벼베기를 하고 있다.



<임시숙소용 컨테이너 설치> 여섯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양양읍 거마리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숙소용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돼지폐사> 양양지역 최대규모의 돼지축사를 운영 하는 양양읍 송암리 이상구씨 농가에서 태풍피해로 죽은 돼지를 폐사시키고 있다.



<양지마을 밤나무100그루 유실> 1백그루의 밤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하천변에 오재도씨의 가옥이 유실된 채 뒤엎어져 있다



<건강검진> 육군 일출부대 의무부대 장병들이 장기간 고립된 현북면 원일전리 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하고 있다.

## "일출부대 수해복구 총력전 "

- 위험불구 고립지 상륙작전 감행 ... 수리특공대·공병대 앞장 -

사상 최악의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에서 밤낮없이 구조활동에 나선 일출부대(부대장 송영귀)와 수리특공대, 공병대의 고립지 구조작전과 응급복구 작업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출부대는 부대내 피해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그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하루평균 2천3백여명의 병력과 1백20대의 장비를 총동원, 이재민들의 피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집중호우가 그친 1일부터 발빠른 복구현장에 투입된 일출부대 장병들은 이날 피해가 심한 양양읍과 낙산지역의 침수가옥 복구와 도로청소, 방역활동 등을 실시했고 일손이 부족한 이재민들을 우선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사진설명> 일출부대 대원들이 항공기 헬기를 이용해 수해를 입어 고립된 양양지역 곳곳을 누비며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현북면 일대 고립지로 향하는 헬기에 구호품을 싣고 있는 모습**

남면 오산 항포구에서 바닷물에 휩쓸려 빠진 김동수씨(77)를 구출했으며, 1일 오후 3시경에는 교통.통신이 두절된 송양면 부소치리 일대에서 탈골환자 4명과 지나 5일 고립지 현북면 원일전리 마을에 들어가 급성장염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세살배기 아이를 구하는 등 수십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활약을 보였다.

특히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면서 늘어난 고립지의 구호활동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고립지 상륙작전을 세우고 현북면 어성전리, 면옥치리, 법수치리, 원일전리, 도리 지역 일대를 헬기로 이동해 펼친 일출부대의 이번 작전은 이재민들에게 실낱같은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설악권 고립지 탈출의 최정예선봉부대로 나선 일출부대의 빛나는 상륙작전에는 통신대장 정하옥 소령과 30여명의 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했으며, KT 양양지점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해 '생명선'을 이어갔다. 일출부대 통신대는 수해이후 현재까지 우리지역 10개 고립마을 1천여세대 주민들의 전화소통을 위해 하루14시간에 걸친 광케이블 설치 대장정을 펼치며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같이 광범위한 우리지역의 고립마을 전화를 개통하자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남면 어성전1리 함석기이장(50)은 "전화와 전기 모두 불공대 암흑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지내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나와 전화를 개통해줘 바깥소식과 친척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 주민들 모두가 너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출부대는 이밖에도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31일 현

## "대학생 복구지원 '구슬땀' "

- 관동대 양양캠퍼스 하루 2백명 투입 -



**<사진설명> 관동대 양양캠퍼스 학생들이 수해현장인 양양읍 거마리를 찾아 매몰된 가옥의 진흙더미를 끌어내고 있다**

태풍피해로 인한 응급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관동대 양양캠퍼스 학생들이 양양읍 거마리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 수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양캠퍼스 학생들은 지난 9일부터 학부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하루평균 2백여명이 수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진흙더미 치우기, 쓰레기 청소, 그릇청소등 수재민들의 일손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나선 여학생들은 침수된 가옥의 식기와 냉장고, 가재도구를 함께 세척하며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매몰된 가옥의 진흙과 차량 치우기 등 중장비가 필요한 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11일 양양읍 거마리 수해현장 1백 50여명을 비롯해 토목공학과, 해양과 학생들은 현북면 도리와 서면 용천리 피해현장을 찾아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2일 개강한 관동대 양양캠퍼스 학생들은 당분간 학부별로 돌아가면서 응급복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수재민 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 "실종자 사체2구 포항해변서 발견"

살인태풍 루사로 인해 지난달 31일 거마리와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사체 2구가 지난 6일 3백km이상 떨어진 경북 포항 해변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실종된 최명준씨(57, 남)와 이정숙씨(52, 여) 로 추정되는 사체2구가 포항 해양경찰서에 의해 포항 죽변리 후정해수욕장과 용천1리 해수욕장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서면 용천리에서 하천범람으로 실종된 이봉근씨(78)는 지난 12일 낙산항포구에서 발견돼 현재 양양군의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3명 등 모두 2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실종자 수색작업 활기 "

## - 일출부대·속초경찰서… 사체 3구 추가발견 -

**<사진설명> 우리지역에서 실종된 실종자들을 찾기위한 수색작업이 육군 일출부대와 속초경찰서, 공무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제15호 루사로 인한 영향으로 설악권 최대 인명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과 12일 실종자 3구가 잇달아 발견돼 수색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31일 태풍의 영향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최초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우리지역은 그동안 군부대와 경찰병력이 대거 투입돼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막대한 토사량과 하천범람에 따라 수색범위가 넓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경찰견과 군견까지 투입한 수색작업은 지난달 31일 거마리에서 실종된 홍성진씨(46)가 5일만에 남대천 하류에서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튿날인 6일 포항에서 우리지역 실종자 사체 2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업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속초경찰서와 일출부대는 하루평균 2백여명의 수색병력을 투입해 양양읍 거마리와 현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현재 사망과 실종을 포함한 24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은 3명의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실종자수는 3명으로 줄었으며 이들 실종자들은 아직까지 법원에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실종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실종자의 경우, 가족들이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의 실종자 처리판결을 받은 뒤 법적 실종 공고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 실종자로 확정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실종자로 확인되면 유가족들이 실종자처리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사망과 부재가 아닌 '실종으로 인한' 호적정리가 된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사망과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위로금 2천만원이, 세대원이면 1천만원, 유가족이 없을 경우는 장례비 1백만원이 지급된다.

## 우리 마을 유래

### <30> 서면 송천리

#### - 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한 마을... -

<마을유래>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하여 강물이 양쪽으로 흘러 내려갔다하여 송천이라 하였다. 또한 뒷내의 지루인 속내가 있으므로 속내라 칭하다가 변하여 송애, 소래 또는 송천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천리라 하였으며 1954년 송어리를 병합하였다.

□ 의춘암 : 송천리 답1번지 동쪽 약물터 아래 하천위에 큰 암석 절벽이 의춘암이다. 이 절벽에 의춘암이라 크게 음각이 되어 있다.

□ 약물소 : 의춘암이라는 절터 옆 큰 암석이 천수가 고여 있는데 피부병환자가 이 천수로 씻으면 낫는다는 약물터이다.

□ 서낭댕이 : 송천리와 논화리와와 경계에 서낭당이 있었던 연유로 유래되었다.

□ 걸인골 : 마을 동쪽 건너골이며 옛날 송천리 탁씨종가 장사에 걸인이 왔다가 길에서 사망하여 길옆에 매장하였는데 그 자리가 명당이라 하였으며 이 골이 걸인골이다.

□ 들치기 : 마을에서 동남간이며 석각 옆 소로를 내려 돌아다녔다 하여 들치기라고 하였다.

□ 웅구점말 : 마을에서 동쪽으로 전5번지에 웅기점이 있었다.

□ 아래매미골 : 본동에서 동남간 전33번지 목화를 많이 재배하던 곳임.

□ 아랫소래 : 본동이름이다.

□ 덩부살골 : 큰골 옆 송천리 앞산이다. 덩부라는 짐승이 서식하였다 한다.

□ 큰 골 : 송천리 앞 강 건너 덩부살이골 옆에 있는 골이다. 골이 깊다해서 큰골이다.

□ 사등골 : 마을에서 남쪽으로 가마터 윗골 네개의 능선으로 이루어져 계곡이 되었다하여 사등골이다.

□ 가마터 : 가마안갈이 생겼다고 하여 가마터이다.

□ 응 골 : 윗소래골 이름이다. 연중 햇빛을 보지못한다고 하여 응골이다.

□ 새 덕 : 응골등 이름이다.

□ 절터목 : 마을에서 서남간이며 새덕에서 1km쯤 올라가면 암자터가 있는데 이곳을 절터목이라고 한다.

□ 박선달의 증골(점골) : 마을에서 서남간쪽이며 절터목에서 1km쯤 위쪽에 있는데 “점골”이라고도 한다.

□ 빨주굴등 : 마을에서 서쪽으로 호랑바위등 북쪽 앞산인데 박쥐가 많이 서식하던 바위등을 빨주굴등이라고 한다.

# 법률상담

-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어떤 절차를... -

<문>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강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견을 쫓아[개동] 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커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워낙 우스워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속초·고성·양양 지역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호적계)에 제출하면 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 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호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참고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그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 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이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 <제6735호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태풍·홍수·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가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보려는 것임.

### 2. 시행일 (2002. 9.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7726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特別災害地域)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自然災害對策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추가지원외에도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國庫)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재해의 피해를 입은 자의 부담비용을 국고 및 지방비(地方費)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의 피해를 입은 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 2. 시행일 (200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호의연품 접수현황

- 보내주신 성원에 군민들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유기호  
김용래  
서면 송천리 부녀회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양양읍 남문2리 유기호법무사  
양양읍 송암리 청마농원 대표  
경기도 군포시

떡,밥 7두  
응급구호세트 3,100개  
라면 5상자  
과일 76상자  
라면 250상자, 생수400상자

|            |                            |                                                                                  |
|------------|----------------------------|----------------------------------------------------------------------------------|
| 박용철        | 경기도 용인시                    | 생수616상자                                                                          |
| 송훈석        | 양양읍 남문리 티아라                | 쌀(20kg)4포, 라면 10상자                                                               |
| 이상원        | 국회의원                       | 1,000천원상당 물품                                                                     |
| 남궁인석       | 바르게살기 양양군협의회장              | 빵 100개, 우유 100개                                                                  |
| (주)대호이엔씨   |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장                | 빵 100개, 우유 100개                                                                  |
|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양초 1,000개                                                                        |
|            | 양양읍 남문1리 제일슈퍼              | 라면(육개장) 50상자                                                                     |
|            | 경기도 과천시                    | 생수 400상자                                                                         |
| 민도식        | 강원도청양양향우회                  | 생수 200상자                                                                         |
| 정재철        | 한나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구위원장         | 라면 50상자, 생수10상자                                                                  |
| 함승희        | 국회의원                       | 300천원상당 물품                                                                       |
|            | 주식회사 진로                    | 생수 1,000상자                                                                       |
| 김웅래        | 양양읍 송암리 청마농원 대표            | 현금 10,000천원                                                                      |
| 이훈         | 강원도 의회 의장                  | 300천원상당 물품                                                                       |
|            | 강원도 의회                     | 생수 60상자                                                                          |
|            | 경기도 양주군                    | 생수 820상자                                                                         |
|            | 강원도 홍천군                    | 생수 320상자                                                                         |
| 서청원        | 한나라당 대표                    | 생수(2.0)800개, 컵라면 5,640개,<br>생수(0.5)12,000개, 수건 800장<br>이불170개, 추리닝170벌, 구호세트200개 |
| (주)경호엔지니어링 | 대한적십자사                     | 1,000천원상당 물품                                                                     |
|            | 경기 구리시 수택동                 | 라면 30상자                                                                          |
|            | 강현면 전진2리어촌계                | 생수 200상자                                                                         |
| 김남하        | 속초현대해상보험                   | 라면 20상자                                                                          |
|            | 양양군지방행정동우회                 | 미락쌈밥, 빵 400개                                                                     |
| 백순애        | 양양읍 남문2리                   | 쌀(20kg)50vh                                                                      |
| 태광건설       |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쌀(20kg) 10포, 라면20상자, 생수 20상자                                                     |
| 홍천전기       |                            | 100천원상당 물품                                                                       |
| 이상량        | 홍천읍 갈마곡리                   | 10,000천원상당 물품                                                                    |
|            | 재경양중고동문회                   | 생수70상자                                                                           |
|            | 해태음료강릉지점                   | 트리오10상자(240개),비누(세면)200세트, 수건300장                                                |
| 최원중        | 태복종합건설(주)                  | 라면 20상자                                                                          |
|            | 한나라당 부대변인                  | 1,000천원상당 물품                                                                     |
| 동양전기통신건설   | 인제 복면 원통리                  | 1,000천원상당 물품                                                                     |
|            | 삼영통신건설(주)                  | 라면 150상자                                                                         |
|            | 강릉mbc방송                    | 이불 100채                                                                          |
| 장현엔지니어링    | 홍천군새마을 부녀회                 | 1,000천원상당 물품                                                                     |
|            | 춘천 효자2동                    | 쌀(5kg)600포, 라면250상자, 양초65상자,<br>부탄가스 200상자                                       |
|            | 경기도 군포시                    | 10,000천원상당 물품                                                                    |
| 조태상        | (자)천일건설                    | 생수 640상자                                                                         |
| 이한동        | 전 국무총리                     | 생수 150상자                                                                         |
|            | 행자부 직장협의회                  | 김치 50kg                                                                          |
|            | 홍천군 새마을협의회                 | 생수 1,152상자                                                                       |
| 정몽준        | 국회의원                       | 생수 1,000상자                                                                       |
| 전세환        | 농협양양군지부                    | 생수100상자, 라면 50상자                                                                 |
| 이금선        | 대영종합건설                     | 쌀(20kg) 17포, 라면30상자, 부탄가스10상자, 버너30개                                             |
|            | 춘천시 새마을 부녀회                | 50만원상당 물품                                                                        |
| 최종남·채정숙    | 강원도여성회관 여성자원활동시범센터         | 5만원 상당 물품                                                                        |
|            | 자원봉사실장                     | 100만원상당 물품                                                                       |
| 이종오        | 강현면 전진2리                   |                                                                                  |
| 정재철        |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인제지구당<br>위원장 |                                                                                  |
|            | 강원도여성경제인협회                 | 모포200장, 방석28개, 간장30개(1.8), 된장10개(5kg)                                            |
| 김진선        | 강원도지사                      | 빵 2,000개, 우유 1,000개                                                              |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세탁비누136박스,세수비누24박스,치약4박스,치솔60<br>박스,화장지24박스,생수200박스(2.0리터),라면422박<br>스           |
| 김대중대통령     |                            | 40만원상당 물품                                                                        |
| 박충규        | 임천리녹원갈비                    | 500만원상당 물품                                                                       |
| 김영덕        | (주)샤니                      | 빵 25,000개, 생수 150상자                                                              |
| SK글로벌      |                            | 생수(2.0리터)560상자                                                                   |
| 속초디마트      |                            | 라면 100상자                                                                         |
| 새천년민주당     | 국회의원부인회                    | 추리닝1상자,담요150상자,티셔츠1상자,떡1상자                                                       |
| 김순배        | 사단법인선한사람들                  | 긴급구호세트700개,락스58상자,슬리퍼 400족,샌달<br>100족,양말50족.빵2,000개                              |

|     |                     |                  |
|-----|---------------------|------------------|
| 김복환 | 양양읍 남문리             | 용전파이프 100만원상당 물품 |
| 김진호 | 한국토지공사영종사업단장        | 300만원상당 물품       |
| 김은래 | (자)화성건설대표 강원도사격연맹회장 | 300만원상당 물품       |
| 오인택 | 양양읍 연창리 성창빌라 606호   | 10만원상당 물품        |

기타 1천여 개인·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의연품이 답지했습니다.  
미게재된 의연금품 접수현황은 다음호에 계속 연재합니다.